

ISSN: 2950-8835 © 2022 KODISA & JKR
JKR website: <http://www.jkr.or.kr>
doi: <http://dx.doi.org/10.13106/jkr.2022.vol1.no2.19>.

A Study on the differential value 'Podaegi' in Korean Tradition

Jung Hwa SEO¹, Ki-Pyeong, KIM²

1. First Author Adjunct lecturer, Department of Spatial Desig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Korea.
Email: saeam111@naver.com
2.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Logistics and Trade, Daejeon University, Korea.
Email: gpkim2970@daum.net

Received: November 25, 2022. Revised: November 26, 2022. Accepted: December 26, 2022.

Abstract

Recently, Podaegi, a traditional Korean childcare product, are spreading abroad like a trend. Sites specializing in the sale of 'Podaegi' have been created in the UK, France, and the US, and their popularity is increasing. In addition, China's preference for safe products and demand for global products and premium baby products are rapidly increasing. Nevertheless, the proportion of baby products in Korea is still very small.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differentiated value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of Podaegi by finding a form and method similar to Podaegi and overseas. The research method was review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actual cases. As a result, Podaegi has high practicality and emotional value, and attachment parenting is possible. When the stages of attachment parenting were compared and analyzed, it was confirmed that attachment parenting is possible for a wider age group than others, and that Korean traditional Podaegi has developed differently from Western ones, and that Korean Podaegi is very advantageous for attachment parenting. Therefore, in the future, Korea's Podaegi needs to meet overseas import standards, propose designs that fit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mote and develop differentiated values abroad.

Keywords: Podaegi, differential value, Korean Tradition, swaddling

Major classifications: Economic history

1. Introduction

최근 뉴욕의 중산층과 고학력 엄마들 사이에서 한국의 전통적 육아 용품인 포대기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맨해튼의 육아 용품점에서는 포대기(Podegi)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강의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고, 아마존에서는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DISA Scholarship Foundation in 2022.

© Copyright: The Autho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odaegi’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6~7 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인기 할리우드 배우들에게도 포대기를 잘 알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한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피트 부부, 가수 그웬 스테파니, 배우 캐리 러셀 등 영향력이 큰 배우들이 포대기를 착용 한 사진이 여기 저기 실리면서 더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2017 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영화 홍보 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포대기를 선물했는데, 그는 포대기를 보자마자 어떤 용도인 지 잘 알고 있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에서도 ‘Podaegi’란 이름 그대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촌스럽고 아기들의 다리 모양이 예쁘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던 포대기가 뉴욕 부모들 사이에서 실용성과 아이와 밀착이 잘 되어 아이와 엄마를 이어주는 놀라운 물건이라는 찬사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를 형겅 천으로 감싸 엮는 방식의 포대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일상 생활에 항상 함께 하면서 정작 우리 한국에서는 그 동안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는 편리하고 세련된 형태의 서양식 육아 용품들을 선호하는 부모들에게 포대기는 점차 외면당하였으나 오히려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육아 소비문화를 살펴볼 때 최근 국가 경제의 초고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력 향상과 장기간 이어진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일명 식스포켓(Six pockets) 현상이 발견되고,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인해 안전한 제품에 대한 선호가 폭증하면서, 글로벌 제품과 프리미엄 육아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중국 육아용품 시장에서 한국 육아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시장의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여진다(Choi,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포대기와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포대기의 차별적 가치를 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실제 사례분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포대기와 어머니, 애착육아의 관련어를 중심으로 문헌 및 보도 자료를 검색하였고, 포대기와 유사한 육아용품 사용 기록과 형태를 국가별로 조사하였다. 특히, 포대기의 시초를 추정할 만한 문헌 연구의 고찰로 포대기의 용도, 차별성, 그 근원을 고찰하였고,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진 포대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포대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 Why pay attention to Podaegi

2.1. Function of Podaegi

포대기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실용성과 감성적 가치 때문이다. 아이를 업고도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대가 가능하고 가방에 넣을 수 있고 가볍다는 점,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이동할 때보다 아이를 업고 있으면 아이의 반응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엄마와 아이와 항상 체온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의 심리적 발달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Shin, 2012; Song, 2004).

2.2. Attachment Parenting

포대기가 아이의 심리적 발달에 좋다는 것은 ‘애착육아’를 말하는데, 애착육아는 미국의 소아과 전문의 William Sears et al.(2020)가 연구한 육아법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아이와 부모 간의 긍정적 유대가 아이를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긍심과 자신감을 발달시켜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Kim & Kim,

2014; Yoo & Kim, 2018). 국내에는 1984 년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애착육아가 강조되면서 2012 년 EBS 다큐멘터리에서 전통적 육아법이 애착형성에 적절하다고 설명하여 주목을 받게 되었다(kim, 2012; Yoo & Kim, 2018). 집안일을 하거나 외출할 때에도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지 않고 밀착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기의 심리적 안정과 편안한 육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ttachment Parenting International(API)는 1994 년 생겨서 본격적으로 애착육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발생시점인 1990 년대 초 미국 유럽 등에서 지금의 양육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서양의 양육방식이 오히려 아이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물질적 풍요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보다 잔병치레, 소아비만, 성인병, 문제행동, 자살, 범죄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 서양의 육아방식이 신체 접촉에 너무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Nicholson & Parker, 1994). 이에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애착육아가 가능한 것이 포대기라는 것이다.

William Sears et al. (2020) 에 의하면, 애착육아 단계 중 출생부터 만 1 세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애착관계가 깊어지는 시기가 만 1 세~3 세, 안정적인 애착관계에 접어드는 시기를 만 3 세~5 세, 애착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를 만 5 세~10 세로 보았다.

3. Parenting Items Similar to Podaegi

3.1. Podaegi

포대기는 아이를 업을 때 두르는 끈이 달린 작은 이불'을 의미한다(Kang et al., 2015). 천의 라고도 불리웠다. 조선 후기 서민층 부녀자들의 쓰개를 처네라고 불렀으며, 쓰개치마와 유사하나 조금 작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처네는 포대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Yoo, 1980). 포대기용 천의는 아이를 업을 때 두르는 것으로 기본 형태에 좌우 끈이 달린 것이라 할 수 있다(Lee, 2016).

Han and Lee (2020)는 포대기를 착장 방식에 따라 띠형, 이불형, 결합형, 처네형, 근현대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띠형은 두께가 두껍지 않은 한 장의 천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감싼 뒤, 양 측면을 주름잡아 묶은 형태의 포대기이다. 이불형은 띠형과 달리 두께감이 있는 사각형의 직물로 아이를 감싸고, 그 위를 별도의 끈으로 묶어 고정된 형태이다. 결합형은 이불형 포대기로 아이를 두르고 그 위를 띠형으로 한번 더 감싸 업은 형태이다. 처네형은 밑단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사다리꼴 형태에 깃 또는 동정이 달린 포대기이다. 처네형 유물 대부분은 누비포대기이다. 마지막으로, 착용한 형태는 이불형 포대기와 유사하지만, 상단부의 깃, 양쪽 끈과 같은 처네형의 구성요소를 갖춘 형태를 근현대형으로 정의하였다.

포대기에 업힌 아이들의 팔은 대부분 포대기 밖으로 들어난 모습이 많은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포대기 착장법과 관련이 있다. 1927년 일본인 무라야마 지준(村山 智順)의 '조선의 복장'에 따르면, 조선의 여성은 아이의 상체를 세우고 하체는 자신의 허리 위에 밀착시켜 아이를 업었을 때 아이의 상반신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했으며, 끈을 어깨에서 가슴 쪽으로 걸쳐 묶지 않고 겨드랑이 아래에 걸쳐 묶었다고 한다(Murayama, 1927/2017). 반면에 일본은 여성이 자신의 등에 아이를 완전히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업었다.

3.2. Sling

이러한 포대기와 비슷한 것이 슬링(Sling)이라는 것이 있다. 슬링은 한쪽 어깨에 옆으로 아이를 업는 방식이다. 그러나 포대기를 사용하였을 때의 균형감에는 미치지 못한다(Jeon, 2017). 슬링은 출생부터 만 3 세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더 아이가 크면 천이 힘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의 포대기는 때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여러 크기와 종류가 있었고, 3 세 이상의 아이를 업을 수 있다.

3.3. Baby Carrier

포대기처럼 묶어서 아이를 업는 방식이 아닌 백팩(Backpac)을 메듯 고정형으로 아이를 안는 방식으로 최근 한국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아기띠(Baby Carrier)를 찾는 외국인이 유독 많다고 한다. 이 아기띠는 견고하고 묶기 편리하지만 슬링처럼 출생 후 8 개월 가량의 아이를 업거나 안을 수 있다.

4.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Overseas

4.1. Korean Traditional Podaegi

한국의 포대기는 고대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권 50, 열전 제 10(三國史記 卷第五十 列傳 第十)에서, 궁예(弓裔)는 신라시대 제 47 대 헌안왕(憲安王, ?~861) 5 월 5 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일관(日官)이 궁예를 키우지 말라고 아뢰니, 왕이 궁중의 사람을 시켜 그 집에 가서 죽이게 하였다. 그 사람이 포대기에서 그 애를 꺼내 처마 아래로 던졌는데, 유모인 여자 종이 몰래 받다가 실수하여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었다. 이를 안고 도망을 가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길렀다고 하면서 출생 시에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Kim, 1996), 여기에서 포대기가 언급이 된다.

또, Encyclopedia of Korean National Culture 의 양지(Yang-ji (良志))편에는 삼국시대 양지라는 스님은 선덕여왕대(632~646 년)에서 문무왕대(661~680 년)에 걸쳐 활동한 인물로 추정되며, 그가 살던 절을 석장사(錫杖寺)라 한 것은 '석장(錫杖)끝에 포대를 달아 두면 지팡이가 스스로 단월(檀越)의 집으로 날아가서 재 지낼 비용을 거두어 다시 본래의 장소로 돌아왔다 하여 얻어진 이름'이라 한다는 것이다(Jang, 1997). 이처럼 고대 문헌에서 포대기는 삼국시대에 실존한 인물과 함께 보여진다.

한국의 포대기에 관한 풍습으로는 아이를 낳은 지 스무하루(21 일)째 되는 날을 삼칠일이라 하는데, 이때 외가에서 할머니가 누비포대기를 해오기도 하였으며, 돌 때 외할머니나 고모 같은 근친자가 옷이나 반지, 수저, 돈 이외에 포대기를 선물하였다(Lim, 1995)

조선 후기부터 개항 이전의 시기에는 주로 띠형 포대기가 나타나고, 1876 년 개항 이후부터 해방 이전 시기에는 띠형 포대기 뿐만 아니라 처네 형, 결합 형 등 다양한 형태의 포대기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종류마다 크기나 형태가 달라도 아이를 등에 업거나 잠자는 아이를 업다가 내려놓으면 이불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Han & Lee, 2020).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쟁과 같은 혼란을 겪으며, 해방 이전 시기와 유사하게 이불형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와 현대화를 겪으며 본 시기에는 이불형에 끈이 있는 포대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다양한 화학섬유가 양산되면서, 포대기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Lee, 2017). 1980년대 포대기는 세탁이 편리한 소재로 만들거나 지퍼를 다는 등 현대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포대기의 소재나 길이, 가격대 등이 더욱 다양해지고 패션화 되었음에도 지계식 캐리홈, 아기바구니, 아기띠 등 육아용품이 개발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한국의 전통 포대기 사용이 감소되었다.

1987년 동아일보에서는 현대식 포대기는 80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해마다 20%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육아용품 메이커에서는 업는 띠의 경우 띠의 여밈 부분을 개선하고 목을 못 가누는 아기를 위해 목 받침대를 부착하거나 망사로 여밈용 띠를 내놓는 등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소비자는 현대식 캥거루띠는 다리와 허리가 아프고 아기의 다리도 빨갱게 진무르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하면서 처네형 포대기는 보기에 다소 촌스럽지만 허리에 닿는 면적이 넓어 편안하고 아기와 밀착되므로 안정감이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경희 교수는 “처네 포대기 보다 끈이 좁고 딱딱한 캥거루띠는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엄마와 아기가 피부접촉을 하지 못하는 지게식 케리홈은 양쪽에 불안감을 준다는 것이다(Kim, 1987. April.13).

최근 ‘HIPABABY’라는 온라인쇼핑몰에는 다양한 포대기가 있다. 단순히 천으로만 된 것에서부터 아기 등을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포대기가 있는가 하면, 한국 전통의 일반적 포대기가 있고, 아기띠와 유사한 형태도 포대기 범주에 들어있다. 모두 ‘Podaegi’로 불린다.

4.2. Comparison of mexico

Son (2009)에 의하면 신부이자 교수인 프란시스코 로페스 데 고마라(Francisco López de Gómara)는 역사서 ‘멕시코 정복(La Conquista de México)’ 등을 남겼는데, 그의 역사서에 아스텍 인의 포대기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1492년 스페인에 의해 신대륙 발견이 되기 이전 남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 중 아스텍인들이 같은 민족이라 기록한 ‘고리’족인 콜와인들은 기원 후 49~50년 소규모로 이주하다가 670년 경 대규모로 멕시코에 왔다고 한다. 이 콜와인들은 멕시코에 올 때부터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여러 기록이 있고, 그들이 사용했던 등에 업는 포대기 이외에 중요한 언어, 가재, 갓, 두루마기, 상투, 쪽머리, 비녀, 옥, 옷놀이 등이 현재 멕시코에 한민족의 이주를 증명하는 예라고 설명하였다(Son, 2010). 벽화 속에 나타난 아스텍인들의 모습 중 머리에 천의 양쪽 끝을 묶어 아이를 업은 모습이 있다.

4.3. Comparison of Japan, China and Korea

1933년 11월 15일 Dong-A Ilbo에서는 조선의 포대기는 대개 무명이나 주단에 솜을 두어 누빈 것이 대부분이라 하였다. 또, “한 벌 장만하면 어린 아이 여러 형제를 기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안는 것보다 일하기 편하고 걸음걸이에 좋고, 아이의 배를 차게 하지 않는 좋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넓고 두터운 보에 네 귀에 끈이 있고, 두 개는 어깨에 매고, 두개는 허리 근처를 맨다고 하였다. 일본사람은 가는 끈으로 어깨와 넓적다리를 매는 방식으로 아이의 다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묘사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의 포대기는 매는 방식이나 끈의 폭이 중국과 일본보다는 낫다고 하면서도 포대기를 사시사철 무조건 이용하지 말고 아이의 손을 자유롭게 매도록 하며, 겨울이면 업은 아이의 발이 시리지 않게 포대기가 들뜨지 않도록 하되, 너무 힘껏 졸라매지 않는 등 포대기 사용에 주의할 점을 소개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까지 일부러 어린 아이를 보는 여자애를 두어 늘 업혀 내 놓을 정도였다. 이처럼 한국에서 어린아이를 업는 것은 엄마의 활동에 제약을 줄이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일반적인 육아법임을 알 수 있다.

소설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아이를 업는 방법의 차이가 나타난다. Mom's secret이라는 소설에 따르면 일본과 우리는 아이 업는 방식이 달라 아이를 업은 뒷모습만으로도 일본 여자와 조선 여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일본인은 아이를 업을 때 넓은 띠로 엑스(X)자 되도록 묶어서 치렁치렁하지 않았다고 한다(Bae, 2018). 포대기 착장 모습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Figure 1>은 일본 여자가 아이를 업은 모습으로 띠가 아이의 엉덩이 밑과 여성의 어깨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끈을 어깨위로 두르다 보면 끈이 길게 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조선은 <Figure 2>처럼 포대기가 겨드랑이 밑으로 한번만 지나가도록 땀다.

4.4. Comparison of the Western Swaddling and Korean Podaegi

Jung(2008)은 ‘서양의 waddling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연구’에서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스웨들링(Swaddling)은 B.C. 4000년경 중앙아시아의 이주민들에 의해 사용된 ‘등에 매는 지게식 요람(back-pack cradle board)’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크레타의 아지아트리아다(Agia Triada) 지역에서 발굴된 B.C. 2600~2000년대 청동기 시대의 스웨들링된 아기 형상 유물은 고대 유럽지역에서 스웨들링이 행하여 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Overseas

Country	Parenting items similar to Podaegi
Korea	The width of the string is about halfway between China and Japan, and up is a way to firmly fix the child to the mother, free the child's hands, keep the child warm, and also serve as a blanket.
Mexico	It is presumed that the Kori tribe, a Korean people, migrated and spread Korean traditional Podaegi, and it is the same method as traditional Podaegi.
China	The wide and thick bo has four straps on its ears, two on the shoulders, and two on the waist so that the child cannot fully adhere to the mother's back.
Japan	By tying the shoulders and thighs with thin straps, the child's legs may be uncomfortable and exposed.
Western	A method of wrapping the baby tightly in a cloth to restrict movement of the limbs, evolving into a holding rather than a carrying method.

Korean Woman Carrying Her Baby In 20C	Mexico Woman Carrying Her Baby In 20C	Japanese Woman Carrying Her Baby In 20C	Western Woman waddling Her Baby In 20C
			
Source: Busan Museum, 2009b; Han, J. H. & Lee. E. J. 2020	Source: http://real-history.co.kr/board/223399/view?_idx=246696 &page=1&keyword=&category_idx=&sortby=CREATE_DATE	Source: Busan Museum, 2009b; Han, J. H. & Lee. E. J. 2020	Source: Cunnington, P. E., & Buck, A. (1965).

Figure 1: Woman Carrying Her Baby In 20C

그러나 이는 단순히 아기를 천으로 아기를 꼭 단단히 감싸서 팔다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국 전통의 등에 업는 포대기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 이것은 후에 앞이 슬릿으로 트인 셔츠나 사각형의 싸는 천으로 가슴에서 발끝까지 내려가서 접어 올리는 베드(bed), 웨이스트코트(팔을 묶는 튜브와 같은 것) 등 신생아를 묶고 감싸기 위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Rose(1989)는 그의 저서에서 삽화로 아기들의 스웨들링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5. Conclusion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한국의 포대기는 서양의 스웨들링과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고 발전해왔으며, 가까운 일본의 포대기도 한국의 포대기 형태와 같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의 포대기는 애착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전통적인 한국의 포대기만의 차별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하는 것이다. 세계시장과 문화 교류의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 K-POP, K-Food와 같은 K문화 상품과 개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 등 복합적으로 뒷받침되면서 한국이 세계시장에 선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otra 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이 2018 년 2 월 14 일 시점 미국시장에 47 개의 주요 유아용 슬링캐리어 공급업체가 있으며, 이 중 33 개사는 미국 기업이고, 14 개사는 인터넷이나 미국 소매업체를 통하여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해외 공급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슬링캐리어를 포함한 기타 섬유제품 수입액은 2017 년 기준 27 억 9013 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수입 시장 점유율 1 위는 중국으로 전체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멕시코(8.8%), 캐나다(3.3%), 인도(2.5%), 베트남(1.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필수 포함할 문구, 최대 권장 중량, 기술 규정 등 유아용 슬링캐리어에 대한 신규 안전 기준을 발효하였다(Lim, 2018).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육아용품 구매 시 안전성 인증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오프라인 구매가 주된 구매 경로라고 한다. 또한, 수입 육아용품의 구입 경험이 96.6%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 육아용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가 A/S 등이 번거로울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이 유아용 슬링캐리어 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현재 한국의 포대기의 가능성과 전망은 충분히 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해외 육아용품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제품 표준 및 절차 준수, 현지에 맞는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한국의 육아용품의 점유율이 낮은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e, S. (2018). *Mom's secret*. Seoul, Korea: G-world.
- Choi, H. M. (2021). In the age of low birth,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in China Experiences and preferences in buying baby products in Korea. *Issue Paper*, 8, 1-22.
- Cunnington, P. E., & Buck, A. (1965). *Children's Costume in England: From the Fourteenth to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Adam & Charles Black.
- Han, J. H. & Lee, E. J. (2020). Types and Transition of Korean Traditional Baby-Carrier.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4(1), 60-74.
- Jang C. S. (1997). Encyclopedia of Korean National Culture (Yang-ji (良志)). *Academy of Korean Studies*, Retrieved June 20, 2022,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6%91%EC%A7%80&ridx=0&tot=53>
- Jeon, Y. H. (2017, April. 4). *A PODAEGI favored by Hollywood stars*. Seoul, Korea: Designpress. Retrieved June 11, 2022,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esignpress2016&logNo=220974738163>
- Jin, M. K. (2008).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Caregiving Behaviors, and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lay Therapy*, 11(1), 31-42.

- Kang, S. J., Kim, M. J., Kim, J. H., Baik, Y. J., Lee, E. J., Cho, W. H., Cho, H. S., & Hong, N. Y. (2015). Dictionary Of Korean Costumes. Seoul, Korea: Minsokwon
- Kim, D. J. (1996). Encyclopedia of Korean National Culture (Gungy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trieved June 22, 2022,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8F%AC%EB%8C%80%EA%B8%B0&ridx=1&tot=4>
- Kim, K. H. (Producer). (2012, May 03). *Old Future of Traditional Parenting Secrets [Television broadcast]*.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 Seoul, Korea: EBS.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www.ebs.co.kr/tv/show?prodId=348&lectId=3107516>
- Kim, S. Y., & Kim H. J.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mother-child attachment,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the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34(5), 31-54
- Kim, S. D. (1987. April.13). *The new "baby carrier" is good for mothers, but....* Dong-A Ilbo.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7041300209207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7-04-13&officeId=00020&pageNo=7&printNo=20161&publishType=00020>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0). China's Childcare Consumption Culture and Korea's Angel Industry's Response Strategy: Focusing on Childcare Products. Association of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hina Comprehensive Research Cooperative Research Series, 20-91-01. Sejong, Korea: Retrieved October 20, 2022, form <http://www.kiep.go.kr>
- Lim, S. H. (2018. February 14). *New Safety Standards for Baby Sling Carriers in the U.S. Take Effect, Overseas Market News.* Kotra. Retrieved June 20, 2022, from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64814
- Lee, M, E. (2016). A study on the diversity of Cheo-nu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6, 55-76.
- Lee, S. (Eds.). (2017). *The folk culture of Ulsan*. Seoul, Korea: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Lim, S. J. (1995). *Encyclopedia of Korean National Culture (Dol(First birthday))*. Academy of Korean Studies, Retrieved June 22, 2022,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8F%AC%EB%8C%80%EA%B8%B0&ridx=1&tot=4>
- Dong-A Ilbo (1933. November 15). *mother's attention. The wider the belt, the better.*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
- Murayama, J. (2017). *Clothing of Joseon as a reading of modern cultural history.*
- Nicholson, B. & Parker, L. (1994). Attachment Parenting International (API).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www.attachmentparenting.org>
- Rose, C. (1989). *Children's Clothes*. London: Batsford Limited.
- Shin, S. H. (2012. August 15). Why New York moms are crazy about swaddling. *Hankyoreh*, Retrieved September 11, 2022,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babytree/547188.html
- Song J. S. (2004). A story about quilting. *Korean discussion*. 5, 166-171
- Son, S. T. (2009). Birth, parenting and funeral culture of the Aztecs. *Comparative Folklore*, 39, 183-223
- Son, S. T. (2010). Customs of our people in the Aztec Empire. *Comparative folklore*, 43, 299-347.
- Yoo H. K. (1980). *Research on Korean Costume History*. Seoul,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Yoo, H. S. & Kim, J. S. (2018). Attachment Parenting and Auditory, Language and Cognitive Rehabilitation.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14(1), 11-22.
- William Sears, Martha Sears, & Elizabeth Pantley (2020). *Attachment parenting to raise a child with high self-esteem*. Seoul, Korea: Pureun Parenting